

# 가톨릭의료인의 사명

가톨릭의료협회를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록할 준비를 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가톨릭정신을 공유하며 ‘치유자이신 예수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재현하는 일’ 즉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픈이들을 돌보는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로서의 사명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명을 살아가는 우리는 경제적인 이익추구와 함께 무한 경쟁 속에 놓인 의료계의 현실을 직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당신의 사명을 살아갈 길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무한경쟁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또 가톨릭 이념으로 한마음이 되어 성공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SSM Health Care 가 그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탁월한 의료 서비스를 통해 치유하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 보인다.”(Through our exceptional health care services, we reveal the healing presence of God)

협회지의 이번 특집이 잊지 말아야 할 우리들의 사명, 우리들이 봉사하고 있는 가톨릭 의료기관의 정체성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으면 좋을 것입니다.

작년과 올해 몽골에서 행해진 해외의료선교사업과, 가톨릭 이념으로 연결되어 벌써 20주년이 된 일본 성 마리아 재단과의 교류 등 협회에서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이 모든 일들이 주님치유의 손길을 대신하는 우리들의 정성일 것입니다.

11월엔 한국가톨릭의료협회의 임시총회와 세미나가 무주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회원 여러분을 직접 만나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기대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불태우고 있는 단풍과 주님께로 돌아감을 알게 하는 낙엽을 바라보며 생명에 봉사하는 회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회원여러분의 가정에 늘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 합니다.



최영식 마티아 신부  
한국가톨릭의료협회 회장 / 가톨릭중앙의료원 원장